

日本은 戦争보상하라

8.15 46년... 民間被害단체 잇단訴訟

>上<

오늘(15일)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종결한 지 46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은 전쟁을 계기로 아픔을 겪은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인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을 전쟁을 계기로 아픔을 겪은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韓人의 中國·香港서도 同調제소



太平洋전쟁遺族등 5件 청구 戰犯출신도준비·滯賃요구도 日人일부 同調“국가간協定으로 개인피해 상쇄안돼”

1991. 8. 13

일본의 민간인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을 전쟁을 계기로 아픔을 겪은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광복 46주년을 맞는 올해 日帝만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일본 법정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宗廟公원에서 폭피해에 대한 23억달러의 보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